

우석대 박석재 교수, 제43대 한국무역학회장 취임

우석대학교(총장 남전현) 박석재(경영학부 무역 전공) 교수가 최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1974년 설립된 한국무역학회는 현재 6000여 명의 회원이 무역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의 무역 및 통상정책 수립과 산학협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신임 박석재 한국무역학회장은 “올해 한국무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커다란 적자 상태가 예상된다”라며 “내년 한국무역이 적자를 탈피하고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석재 한국무역학회장은 1997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했으며, 한중합작국제경제통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우석대 무역학부 교수, 제43대 한국무역학회장 취임



전북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작품 시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학생들의 우수한 공학설계 작품을 발굴하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 22일 우수작품 시상식을 가졌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설계·제작하는 프로젝트형 교과목으로, 학생과 대학, 산업체가 함께 지원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대 LINC3.0 사업단과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매년 학생들의 과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모두 76개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기계설계공부 학생들로 구성된 '기기가게' 팀(송민수, 윤준서, 이도하, 임의진)이 비접촉식 초음파검사 기법을 이용한 배관 탐사 로봇 작품을 통해 사업성과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함께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팀 송민수 학생은 “팀원들과 오랜시간 고생하며 작품을 만들었는데 좋은 결과로 보상은 것 같다”며 “한 학기 동안 작품 개발에 도움을 주신 오종현 교수님과 LINC 3.0 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탐과 열정이 담긴 캡스톤디자인 작품은 온라인 전시관에서 상시 전시될 예정이며, 그 중 우수작품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이를 통한 전북대 중앙도서관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중화산2동지사, 취약계층에 겨울이불 전달

전주시 중화산2동(동장 소미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옥)는 지난 22일 관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겨울이불 22채(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의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겨울이불 전달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감사 상품권 전달, 복날 삼계탕 전달, 지역 세탁소와 연계한 이불빨래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다.

이현옥 위원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어느 때보다 한파를 겪고 있을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중화산2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하며, 이불을 전달하여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수완진 사랑더하기, 김제시에 겨울이불 100채 기부

(사)수완진 사랑더하기는 지난 23일 김제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고급 겨울 이불 100채를 기탁했다.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능기부로 전곡을 돌며 거리 공연과 버스킹을 통한 자신 모금 활동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남성 뉴오 그룹 수완진은 2017년부터 김제시중 선추제 등에서 무료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연말에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며 김제시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2회 김제시평선추제에 부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 베품제 행사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날씨가 추워진 연말에 김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수완진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6년 연속 지속되었다. (사)수완진 사랑더하기 물품 나눔은 코로나로 인하여 별도의 기탁식 없이 물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장애인복지 증진·살기 좋은 전북”

전북장애인복지증진대회·송년위안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사가 주관한 제23회 전북장애인복지증진대회 및 송년위안문화공연이 지난 22일 전주고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22년도 장애인복지를 마감하며 2023년도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 살기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송년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연을 통해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열렸으며 김안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이수정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황의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이사장, 이영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김동주 새빛장애인 지립생활센터회장, 장용주 교통장애인협회전북회장 등 내빈들과 장애인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 김동복 인권운동상담사 초청 인권강연회, 복지증진 결의문 낭독, 송년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 85명에게 쌀, 라면 등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송년위안문화공연에서는 이랑고교장구, 품바(각설이), 기타연주, 대금연주, 초대가수 공연, 민요, 무용 등으로 구성 돼 있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사가 주관한 제23회 전북장애인복지증진대회 및 송년위안문화공연이 지난 22일 전주고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후원의 집 제8·9·10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주)참사담텔(대표 이정준), 황엔박세무회계사무소(대표 황영훈), 통집(대표 서봉진) 3곳의 업체를 각각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 제8, 9, 10호로 지난 22일 선정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후원의 집으로 선정된 이정준 대표, 황영훈 대표, 서봉진 대표 등은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에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올 한 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나서준 10곳의 후원의 집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내년에도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을 찾아 더 많은 후원의 집을 발굴하여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주)참사담텔(대표 이정준), 황엔박세무회계사무소(대표 황영훈), 통집(대표 서봉진) 3곳의 업체를 각각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 제8, 9, 10호로 지난 22일 선정했다.

전주대, 제33회 추계대학 레슬링대회 종합우승 ‘3연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레슬링부가 지난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추계대학 레슬링대회에서 개인전 1위(3명), 2위(2명) 3위(2명)를 휩쓸며 3년 연속 단체 종합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으로 3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우승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라 우승기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김민재(운동차량학과 2년) 학생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130kg급에 출전해 매 경기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였고, 그레코로만형 운동원(1학년), 오민서(1학년) 학생 선수도 우승을 차지했다. 그레코로만형 윤건형(3년), 소원(2년) 학생 선수는 2위를 정상연(2년), 손태양(1년) 학생 선수는 아쉽게 3위에 입상하였다.

또한, 김민재 학생 선수는 최우수 선수를, 김윤호 감독



은 우수지도자상을 받는 경사를 맞았다.

의료비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



건협, 희귀 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비 1억원 후원

한국건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본회 추담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 1억 원을 지난 21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건협 이은희 사무총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의료비는 고가의 의료비 부담 및 장기 치료로 인한 환우 및 가족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을 돕는 데 사용된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국내 연도별 희귀의약품(신약) 허가 및 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년부터 '20년까지 시판된 희귀의약품은 총 127개이며, 그중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56%(71개)에 불과하다.

전북대, 캠퍼스 텃밭 우수관리 지역민 시상



비전대, 유학생 위한 따뜻한 밤 사랑 나눔 행사 가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캠퍼스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올해 농작물 우수재배 및 우수관리자를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전북대 캠퍼스 텃밭은 그간 대학과 지역민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전북대는 시농식과 가을같이 행사 등을 열고 텃밭을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시상식도 이러한 소통의 일환이다. 전북대는 최우수 상에 이경규씨 등 모두 10명을 우수재배 및 관리자로 선정해 소정의 상품과 내년도 텃밭 우선 분양권 등을 선물했다.

올해 전북대는 1,456㎡ 면적에 모두 119 구획의 텃밭을 마련, 지역민과 구성원들에게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북대병원 김현호 교수 우수연제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는 소화기내과 김현호 교수가 2022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지난 23일 수상했다.

김 교수는 전북대학교 국제라벤선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술 중 동맥 이산화탄소와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비정상적 차이 예측 모델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우수연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수술 중 고이산화탄소의 혈중을 확인하기 위해 동맥혈가스분석(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의 이산화탄소분압(PaCO2)을 측정할 것이다. PaCO2에 대한 근사치로 사용될 수 있는 호기말이산화탄소 농도(End-tidal CO2, ET-CO2)는 전신마취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비정상수술을 받은 환자 데이터가 포함된 ViabilityDB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해 PaCO2와 ET-CO2의 관계와 그 영향인자들을 확인하고 머신러닝에 기반해 비정상적인 Pa-ET-CO2 값의 예측 모델 만들었다.

연구 모델을 통해 환자의 호흡기계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Pa-ET-CO2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 수술 중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계 호흡의 특성 값도 Pa-ET-CO2 결과 예측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 ET-CO2와 PaCO2 사이의 비정상적인 차이의 원인은 호흡기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PaCO2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김미영 팀장 감염관리 유공 표창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유희철)는 감염관리센터 김미영 팀장이 감염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장을 지난 23일 수여했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 감염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미영 팀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19년부터 현재까지 따른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에 부응해 코로나 환자의 입원 치료, 의료가간의 감염병 대응, 직원감염관리 교육 등에 기여해왔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 도청과 중수부 병상배정반의 환자배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의료가간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병상운영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확진자 병상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이바지했다.

의료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내 직원 6,844명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시행은 물론 개인보호구 착용의 훈련, 손위생 교육 등 감염관리 교육 시행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비전대, 유학생 위한 따뜻한 밤 사랑 나눔 행사 가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회장 이선옥) 후원을 받아 지난 22일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북 간호조무사회 또마키 봉사단 회원들이 뜻을 모아 따뜻한 밤 한 끼라도 챙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이다.

이 자리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유학생 20여명과 함께 이선옥 전북 간호조무사회 회장, 이현경 전주대 특임교수(전 국민희 전북도당 대변인), 이효숙 국제교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유학생 도안하임(자동차보험학과 2학년)은 “유학 생활 중 여러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효숙 국제교류원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너무나 애쓰시고 고생하셔서 감사와 위로를 받으셔야 할 간호조무사님들께서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나누어 주심에 대해 구성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학생들에게 나눠주시는 사랑이 국내외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고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